

추석명절 종합대책 시행

군산시, 빈틈없는 코로나 방역체계 가동·민행경제 지원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의 안전 및 민생경제 지원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기간 동안 코로나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강화에 나설 예정이며, 민생경제 지원 등 분야별로 종합대책도 추진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추석연휴에도 상담인력을 24시간 운영하며 신속하게 민원에 응대하고 군산시 119군산상담서, 의료기관이 상호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소아,

임산부,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환경, 식품, 보건 등에 대해 지역대위 사건과 사고 및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추모관을 예약제로 운영해 왔지만, 올해는 추석 당일에만 휴관하고 명절기간에 추모관을 정상운영하며 물가안정 및 민생경제, 생활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과 더불어 추석 제수용

품 물가 조사를 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명절동안에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9~12일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연휴기간 교통불편 민원 및 교통소통 관리 및 불법 운행지도 단속과 ITS 시설물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방범 CCTV관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방범 안전을 제공하게 된다.

생활쓰레기 긴급 하수시설 보수,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시설물 점검, 가로환경정비 등 상황반을 운영하여 명절 연휴 생활불편민원에 긴급 대응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지난 2일 자매도시 김천을 방문해 김천시청 광장에서 우리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열어 김천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교류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천시민들의 참여에 감사”

군산시, 자매도시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교류 판매 '성황'

군산시는 지난 2일 자매도시 김천을 방문해 김천시청 광장에서 우리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열어 김천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교류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 먹거리정책과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김천시를 대상으로 8월부터 울의장어, 흰찰쌀보리, 통곡물, 한과, 떡, 박대, 간장게장 등 23개 업체 35개 품목으로 4천2백여만원의 사전주문을 받았으며 행사당일은 13개 업체가 현장판매를 했다.

시와 김천시는 지난 1988년 자매결연을 맺고 2009년부터 매년 양 도시간 농특산물 교류판매행사를 진행해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김천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으며,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군산 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이번 행사에는 김임준 군산시장장을 비롯,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농협중앙회시지부장,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 등 50여명의 대표단이 김천을 찾아 군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양 도시간의 상생발전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등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직거래장터 행사에 김충섭 김천시장의 많은 관심과 김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폭넓은 교류행사를 추진하여 군산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업체의 소득증대를 위해 직거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1일에는 김천시에서 사인머스켓, 자두, 복숭아 등을 판매 홍보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한 바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펜싱 메카 익산시, 태극마크 향한 결전지로 급부상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지훈련·선발전 유치...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적극 후원

태극마크를 향해 국내 최고실력을 자랑하는 펜싱선수들이 펜싱 메카, 익산으로 총집결한다.

익산시는 2022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지훈련 및 2022 펜싱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연이어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3일간 2022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지훈련에서 58명의 선수단은 익산에서 국제 경쟁력을 지닌 세계적 선수로 성장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중이다.

이번 전지훈련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후원과 익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다.

특히 올해 1월 종목별 오픈 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 예매 개인전 1등과



태극마크를 향해 국내 최고실력을 자랑하는 펜싱선수들이 펜싱 메카, 익산으로 총집결한다.

영태 사브르 개인전 3등 이하와 및 102회 전국체전에서 2관왕을 거머쥔 플뢰레 모병이 선수 등 최고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또한 이달 14일에서 17일까지 4일간 1,000여명의 펜싱 선수단이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을 치른다. /익산=이재훈기자

익산시, 위기아동 조기발견 집중... 아동복지안전망 강화

익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해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아동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및 장기간 결석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토대로 3분기에 발굴한 위기아동 185명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위험징후 점검과 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이는 보건복지부 '아동행복지원사

업'으로 분기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예측·발굴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아동 가정을 방문해 학대 징후 확인, 양육 환경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해준다. 10월에 실시하는 4분기 조사에는 만 3세 가정양육아동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소재·안전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하반기에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익산경찰서와 익산시아동보호전

문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재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두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내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읍면동 담당공무원 방문 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꼭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5급 이상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군산시 공무원이 청렴도 향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과정에서 시 내부 공직자를 상대로 실시한 반부패 역량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히 기획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이 강사로 나서며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

해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과 계층 및 분야 등 시 청렴 수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뒤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강의에 참석한 한 간부공무원은 “빠이론 얘기들이 많았고 변화하는 조직 문화에서 올바른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는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긍정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부패관행을 근절할 때 군산시의 실질적 청렴도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농민 공익수당 '다이어움' 추석전 지급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 74억원을 추석 전 지급한다.

시는 5일 60만원씩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다이어움'으로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최종 대상자로 1만2천400 농가가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차로 다이어움 카드 소지자 7천백여명에게는 지급이 완료됐다. 이 밖에도 시는 다이어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5천2백여명에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기프트카드를 배부할 방침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영농규모가 1헥타 이상이어야 한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시, 섬지역 연료문제 해결 추진

군산시가 지난 3월 공모 선정된 어청도, 개야도 섬마을 단위 LPG(액화석유가스) 시설 구축 사업에 이어 명도, 말도에도 LPG 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그간 섬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연료 공급이 불안정해 동절기 난방 및 취사 중단의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섬 마을에 직접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연료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며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청도는 현재 배관망 설계 중으로 내년 공사 완료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야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예정이다. 명도와 말도는 2022년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올해 하반기 명도 사업을 시작하고, 말도는 24년부터 25년까지 시설 구축 예정이다.

한상봉 항만해양과장은 “섬 주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